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소신지서 강해  
-요엘서-

## 요엘의 예언

(요엘 2장 28 - 32절)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본문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신 후 그의 설교 중에 인용된 위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는 신약에 와서 한 첫 번 설교며 또 사도로서 한 첫 번 설교로 큰 축복의 열매가 맺어진 설교입니다.

요엘은 이스라엘의 재앙의 때에 모든 것이 소멸된 후에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이스라엘에 임할 것라고 예언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일에 이스라엘에 임할 축복에 관하여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 1. 예언의 성취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28절).

요엘은 성령이 임하실 것을 명료하고도 긴급하게 예언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예언은 모두 성취되었고 남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입니다. 예언을 사모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언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엘의 예언은 우리로 하여금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요엘의 예언은 미래에 있을 사건을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는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민 11:29). 당시에 임직 받은 장로 70명 중에 두 명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자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모세에게 고발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실 것을 말했습니다. 요엘의 예언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에는 성령께서 특정한 몇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요엘이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게 된 것은 예언을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물질과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는 영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마 16:26).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기 전에 영혼이 잘 되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종교개혁자들에게 중요한 개혁의 원리는 만민제사론이었습니다. 이 원리는 종교개혁이후 지금까지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여자가 장로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고 따라서 여자도 안수를 받고 교회를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교회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성직자를 너무 강조하는 성직자주의입니다. 성직자는 누구보다 성령이 충만해야 하겠지만 교회가 성직자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반성직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조직과 성직자를 무시하는 무교회주의자들입니다.

또 이원론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자기 영역을 주장하여 자칫 하면 교회 한 몸 된 개념이 깨지게 됩니다. 교회는 성직자도 필요하고 평신도도 필요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2).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은 목사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모두의 책임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서로 섬기고 봉사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직자와 성도의 이상적인 관계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 2. 새로운 시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32절).

요엘의 예언은 오순절에 성취됨으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역사상 매우 중

요한 순간입니다.

인생에는 중요한 전환점이 있기 마련이고 이런 시간을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며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역사의 카이로스는 예수님께서 역사의 시간 속에 들어오신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시간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행 2:44).

성령이 오시므로 초대교회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예배하며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공동체로 이루게 하신 것은 증거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초대교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삼 천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행 2:4-13).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첫 번 증거는 예수님을 증거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하여 산헤드린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 하였습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하면 봉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일곱 집사를 뽑을 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이것은 증거와 기도와 봉사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함입니다. 스테반 집사는 성령 충만하여 죽는 자리에서까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성령이 부어진다는 요엘의 예언은 회개에 이르게 되는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증거의 삶을 살았습니다.

###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제23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 제13학기 서울 성경대학 일정 발표

## 3월31일(월) 개강

우리교회가 매년 전후반기 각 10주씩 한국교회의 갱신과 성장을 위하여 매 학기마다 주제를 가지고 개최해오고 있는 목회자 신학세미나 제23학기 과정 및 성도와 이웃주민을 위한 열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제13학기 서울 성경대학의 2003년도 전반기 일정이 발표되었다. 23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와 제13학기 서울 성경대학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표를 참조하면 된다.

일자	제1교시	제2교시 강의제목	강사	
3월31일	(2:00~3:30)	목회자의 비전과 교회 성장	이수영목사(새문안교회)	
4월07일		기도목회와 교회의 영성	이정연 교수(성경신대)	
4월14일		심방목회와 상담의 실제	유영권 교수(연세대)	
4월21일		예배의식 모델 제시	이광희 교수(평택대)	
4월28일		시편연구	백효족 교수(ACTS)	
5월05일		이중윤 목사	어린이날	
5월12일		(서울교회)	전도 동력회와 민족 복음화	민경설 목사(광진교회)
5월19일			지역사회와 섬김목회	진희성 목사(대구 남산교회)
5월26일			교육목회의 비전	강희천 교수(연세대)
6월02일			소그룹 목회의 비전	류영모 목사(일산 한소망교회)

개설강좌	요일/시간	담당	호실
요한복음	월, 오전 10:00 - 11:00	이용식 목사	602호
디모데 전, 후	화, 오전 6:00 - 7:00	한상은 목사	602호
열왕기 상, 하	목, 오전 6:00 - 7:00	윤영국 목사	602호
에스겔	금, 오후 7:30 - 8:30	이규정 목사	602호
교사양성반	주일, 오후 3:20 - 4:30	한상은 목사	603호
교구일꾼양성반	주일, 오후 3:20 - 4:30	이용식 목사	606호
전도학교	주일, 오후 2:30 - 3:40	이규정 목사	802호
평신도 신앙강좌반	주일, 오후 12:40 - 1:30	김영한목사(이민열 전도사)	601호/101호
오리문답반	주일, 오후 1:00 - 2:00	김재진 목사	603호
찬양대원 양성반	주일, 오후 1:30 - 3:00	박정선 집사	502호
주부대학	화, 오전 10:00 - 오후 2:00	윤영국 목사	502호
경로대학	목, 오전 10:00 - 오후 2:00	이용식 목사	101호

### 23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주제: 21세기 목회의 비전

기간: 2003년 3월31일 - 6월 2일

(매주 월요일, 10주간)

수강료: 20,000 원

대상: 목회자(초교파적)

### 제13학기 서울 성경대학

기간: 2003년 3월 31일(월) - 6월 8일(주)

(10주간)

입학대상: 전교인(이웃 주민도 입학가능)

수강료: 10,000 원(과목당)

## 농인, 우리의 친구

박연주(에바다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라는 뜻이라”(막8:34)

지난 1월27일 창립2주년을 맞이한 에바다부의 감사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의 시작과 마치는 시간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평강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짐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에바다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하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중윤 목사의 설교, 이상득 목사의 기도, 지난 1년간 에바다부를 섬겨주셨던 서명철 목사의 수확성경봉독, 이어지는 에바다 찬양대의 수확찬양은 부교역자 사모님 몇 분이 함께 하셔서 더욱 아름다운 찬양이 되었고 이 모든 모습을 보며 신실된 타교회의 농인부 사역자들은 부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날 이중윤 목사님께서서는 마태복음 25:31~37 말씀의 비유를 들어 교회는 세상에서 큰 자로 보이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 일해야 하며,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에바다부를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소외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 특별히 본문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들에게 손가락과 침을 사용하시기까지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심으로 이 날 함께 한 농인사역자들은 도전과 각오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예배축사를 맡으시고 멀리 속초에서 눈내리는 빙판길을 마다 않고 달려오신 한국농아인선교회 신임회장 이원홍 목사님은 아름다운 서울교회에 세워진 에바다부를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뜨겁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에바다부의 중심을 운행하셨던 주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준비한 시간들을 힘입어 에바다부는 이제 더욱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이 날 축하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지방에서 오셨고, 곳은 날씨가 열려하였지만, 생각 밖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예배 후에 다과와 함께 풍성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모여서 교제하기를 더욱 좋아 하는 농인사회의 특징을 생각하면 이번 행사가 농인사회에 서울교회 에바다부가 널리 알려지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아직은 젊은 일손이 부족한 에바다부의 이번 감사예배를 위해 기초수화반의 청년들이 조금은 서투른 수화로 안내와 접수창구를 지켜주어 오히려 농인들에게는 서울교회 젊은이들의 농인사랑과 봉사로 비춰져 더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이미지로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셨고 함께 하신 많은 분들에게 이날의 예배가 아름답게 기억되리라 믿습니다.

교회 각 부서의 여러 모양의 도움에 감사드리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 에바다부의 창립2주년 기념감사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큰 영광으로 올려졌음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유년부 교사로 오세요

유년부(부장 신용식 집사)는 어린이들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신입교사를 모집한다. 아래의 자격조건 중 적어도 3가지 이상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 된다.

### 자격조건

- 매주 어린이들과 축구를 해 줄 수 있는 분
- 반 학생을 한명도 주지 않았는데 어느 틈에 학생들을 모아와 지도하고 계신 분
- 슬픈 영화를 보면 눈물이 나고 기쁜 일이 있으면 크게 웃을 수 있는 분
- 주일 아침 일찍 오는 것이 즐거우신 분
- 자기 명함에 교회학교 교사임을 열마든지 밝힐 수 있는 분
- 자기 차에 아이들이 가득타고 힘차게 찬송을 하면서 가는 상상을 하면 즐거운 미소가 나오는 분
- 서울교회 성도임이 자랑스러운 분
- 가족예배에 참석하여 이중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으신 분
- 성경책을 읽으면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분
-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많아 시간이 모자라는 분
-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
- 성경학교에 참여하려고 휴가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분

## 함박눈을 헤치고 다녀왔어요

조대영 전도사(유년부 지도)

작년 여름 우리교회는 농촌전도봉사로 충남 예산 목양교회(담임목사 인태군)에 다녀왔었다. 당시 4개 교회가 연합하여 진행한 여름성경학교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후 목양교회의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은 서울교회와 계속적이고 다양한 교류를 해왔다.

조대영 전도사와 3명의 교사들은 중고 컴퓨터를 보내주었으면 하는 목양교회 교회학교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28일(화)에 그곳을 다녀왔다. 함박눈이 큰 바람과 함께 휘날려 오는 길을 달려가 찬희네 집과 교회에 컴퓨터를 전달해 주었다. 비록 중고 컴퓨터이지만 어쩔 줄 모르며 기뻐하는 찬희를 보면서 미안함과 고마움이 밀려왔다.

한편, 목양교회는 어린이들을 서울교회에 보내어 견학을 시켜주고 싶어 하는 뜻을 전해왔다. 이에 따라 우리교회는 오늘 2월24일과 25일 1박2일로 진행되는 유년부 겨울성경학교에 참여를 허락하고 이를 추진 중이다. 유년부는 이일을 위해 2월중 매주 금요일 기도회에 참여하여 열심히 기도하기로 했다.

### 청년부 겨울수련회

우리교회 청년부 겨울수련회가 2월 14일과 15일 양일간 경기도 양평 소재 미리내 수양관에서 '삶의 주인이 되신 성령님'을 주제로 열린다.

# 2003 통독사경회를 마치고



### 김명숙 권사(1교구)

통독 사경회를 해마다 참석할 수 있는 건강과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통독 사경회가 생기기 전에는 연말연시가 되면 고향에 가는 귀성객들을 보면서 모든 실향민들이 그런 것처럼 저 역시 눈시울이 뜨거워 지곤 하였습니다. 고향 떠난 지가 벌써 56년이 되어 이제 세월 따라 기억마저 희미해져 가고 있을 때 성경통독 사경회를 시작하게 된 것은 아마도 저를 위로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받은 은혜는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울리고 흔들여 깨워주시는 말씀을 읽으면 아멘 아멘이 저절로 나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빠른 목소리로 방언하시는 것처럼 읽어나가시는데 모두 꼼짝 못하고 말씀에 푹 빠져 성경을 읽으며 한 줄이라도 놓칠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숨도 쉬지 못할 정도입니다. 또한 모두가 아멘 아멘하며 은혜 받는 성도들이 한편으로는 색색의 연필로 밑줄 긋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경고의 말씀에는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심정을 가졌으며, 약속의 말씀에는 꼭 지키기를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어서 세상 책에서는 느끼지 못하였던 뜨거움과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도 또다시 새롭게 느껴지는 오묘하고 심오한 그 감동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통독을 마치며 저는 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는 한해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다함이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이 언제나 우리 교회를 인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 최요셉 (청년부)



설 연휴를 맞이하여 이곳저곳에서는 고향에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 스키장에 가는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었지만 나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 그러던 차에 설 연휴 전날 어머니가 성경통독 사경회에 우리가족 모두의 이름으로 신청했다는 말씀을 하셨다. 나의 의견도 묻지 않고 신청한 것에 다소 불만이었지만 내심 성경 통독에 기대하는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이 날 밤에 늦게 잠을 잤기 때문에 연휴 첫날 사경회가 시작하는 오전 8시에 맞추어 일어나 준비하는 일부터가 고역이었다.

사경회 장소인 교회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는 교역자를 포함하여 120여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 구약성경 에스라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의 말씀 중 대선지서를 제외하고 읽었는데, 구약은 통독하기가 어려웠던 나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런데 욕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까지는 읽을 때 친숙해서인지 쉽게 이해가 되고 은혜롭기까지 했지만, 나머지 말씀들은 지루하거나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말씀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그리고 꼼꼼히 읽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위주로 편식을 하

이번 수련회를 통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뻐고 이런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고등부가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는 고등부가 되길 기도하며 고등부의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 김미려 (고등부 3학년)

2003 고등부 겨울수련회는 나에게 너무나도 뜻 깊은 시간이었다. 고 3이라서 부모님께서 많이 반대하셨지만 학교수업에 빠지지 않고 서울과 이천을 두 번 오간다는 조건 아래 부모님도 허락하셨고, 간절한 기도 끝에 바라던 겨울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오래간만에 드리는 뜨거운 찬양과 목사님의 "다니엘이 되자"는 비전의 말씀, 그리고 이어진 뜨거운 기도시간.. 월요일 저녁집회는 내게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화요일 오전에 성경통독, 쟁반 노래방 등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이 많았지만 아라와 나는 아쉽게 늦게 도착해서 참석할 수 없었고, 오후 조별 모임부터 참석했다. 저녁집회 시간에는 고3들을 위한 기도시간이 있었다. 불안한 마음과 힘들었던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쫓

다보니 생긴 좋지 못한 징후였던 것 같다.

성경통독은 두 시간을 단위로 하여 휴식 없이 한자리에 서 계속 성경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을 뿐 아니라 말씀을 본인의 입술로 읽지 않고 앞에 있는 단상에서 목사님들께서 읽어주시는 말씀을 따라 눈으로 읽다보니 가끔씩 졸음의 유혹이 덜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에 걸쳐 말씀을 읽는 동안 무엇보다도 말씀의 소중함과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젊은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현재의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 가운데 하나인 설날에 전통이라는 명목 하에 자칫 범하기 쉬운 악한 풍습, 그리고 교회 밖에서 세상과 어울려 유혹에 빠질 수도 있었던 나에게 이러한 깨달음은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에 틀림없었다.

## 군 부대에 컴퓨터(PC)보냅니다

한국 기독교 군 선교 연합회 비전 2020실천운동위원회(위원장 이종운)는 44개 육해공군 해병대 훈련사단 군중실에 컴퓨터를 보급하여 비전 2020운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가정이나 회사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교체하는 분은 사용하던 것을 보내주면 유용하게 사용할 것이라 하여 성도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문의는 사무국으로 하기 바란다.

곳이 이겨나가리라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어진 조별 발표회... 형제자매들의 숨겨진 재능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 또한 지체들과 함께 친교의 시간도 가졌는데, 아직 어색한 1.2학년들과 많이 가까워졌고, 목사님, 선생님들과도 즐거운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2박 3일을 모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짧은 시간이나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 매일 Q.T를 해 나가면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고 다짐한다.

고등부 친구들! 수련회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 드리던 뜨거운 마음 잊지 않고 언제나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 의지하는 고등부 형제, 자매들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끝으로 수련회를 안전하고 은혜롭게 다녀오게 해주신 하나님,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좋은 말씀 해주신 오경식 목사님, 아라와 내가 수련회에 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손재영 선생님,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뒤에서 많이 노력해 주신 고등부 선생님들, 집사님, 대학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언제나 고등부를 챙겨주는 고마운 대학부 언니, 오빠들... 너무 너무 감사드리며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 고등부 수련회를 마치고

### 임형빈 (고등부 2학년)

다람쥐 채 바퀴 돌듯이 학업에 열매어있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을 느끼며 마음껏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어 경쾌했다. "다니엘이 되자" 라는 주제로 수련회가 시작되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굳은 의지와 확고한 믿음을 배우면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경식 목사님의 체계적인 설교, 불같은 기도 인도, 신앙 고백이 되는 찬양 인도, 그 열기는 마치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강림 역사를 체험하는 듯했다. 그 만큼 뜨거웠고 잠념 없이 집중적으로 한 기도로 인해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일들이 영상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회개와 참회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다니엘, 시편, 잠언 성경통독을 했다. 주어진 시간에 성경을 계속 읽으니 허리가 아파기는 했지만 큰일을 해 낸 것 같은 성취감을 느꼈다. 평소에는 주간 성경 문제를 하며 성경을 읽는데 한번에 많이 읽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Valentine's Day whiteday  
**국적없는 상흔에 물든  
 Fourteenth Day  
 문화에 대한 소고**  
 Valentine's Day whiteday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발렌타인 데이는 이 세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 상술에 얼룩지고 있다.

최근 쇼펡장소마다 예쁘게 포장되어 진열되어 있는 초콜릿. 2월 14일 발렌타인 데이가 다가옴을 느끼게 하고 있다. 발렌타인 데이, 화이트 데이, 그리고 블랙 데이까지... 14일의 세레모니(기념일) 문화가 만연한 요즘의 세태를 기독교적 시각으로 돌아보자.

Fourteenth Day의 시작은 단연 발렌타인 데이(Valentine's Day)이다. 사랑을 고백하는 날,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라는 뜻 깊은 의미와 함께 예민한 감성을 가진 이들을 자극하여 이익을 남기겠다는 상술이라는 좋지 않은 지적이 있어온 날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나라에서도 minor holiday로 자리 잡은 발렌타인데이의 유래는 3세기 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발렌타인은 3세기경 로마의 사제로, 당시의 로마제국의 황제 클라우디우스 2세(Claudius II)가 원정을 떠나는 병사들의 결혼을 금지시키자 이를 어기고 서로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황제의 허락 없이 결혼시켜준 죄로 순교했다.

성 발렌타인이 처형당했던 날이 바로 270년 2월 14일. 그러나 영국판 펄컨 북스의 '성인사전(聖人事典)'을 보면 성 발렌타인은 전설적인 순교자로 기록될 뿐, 이날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카드와 선물을 보내는 습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한다. 영국에는 겨울잠에서 깬 새들이 2월 14일을 기해서 사랑을 시작한다는 속전(俗傳)이 있는데, 14세기 경의 이 속전과 발렌타인의 순교일이 우연히 맞아들어 연인의 날이 됐을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그래서 영.미.불 등 소수의 나라에서는 카드와 초콜릿을 연인에게 선물하는 풍속이 있지만 정작 발렌타인의 고국인 이탈리아에는 그런 습속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처음에는 아버지와 자녀가 사랑의 교환과 감사를 적은 카드를 교환하던 풍습이, 20세기 들어서는 남녀가 사랑을 고백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변했고, 유럽에서는 연인들이 붉은 빛의 장미나 세인트폴리아 같은 꽃을 사랑의 표시로 주고받는다. 한국에서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특히 여성이 남성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날로서, 18세기의 돈황 카사노바가 사랑을 유발시키는 미약으로 초콜릿을 선전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 사랑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선물로 각광을 받아온 초콜릿이 그 매개가 되고 있다. 식품외식업체를 비롯하여 유통업체 전반이 이 날을 전후해 발렌타인 초콜릿 마케팅 열풍에 휩싸이고, 제과점, 백화점 등은 물론이고 동네 슈퍼마켓조차도 내온사인과 초콜릿 광고로 뒤덮인 다. 매년 갈수록 사행심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에게는 성탄절보다도 더 기다려지는 날로 꼽히고 있는 실정이다.

12달을 가득 메우는 DAY 문화는 자신의 감정을 선물이라는 매개체로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젊은 층에게 하나

의 문화로 정착한지 오래다. 젊은이들의 독특한 '의미 있는 날 만들기'는 '수능 100일 전', '애인과 만난지 100일째, 혹은 1년 기념일' 등의 형태로, 교묘한 상술과 뒤섞여 청소년들을 1년 내내 이성간의 사랑에 몰두하게 만드는 왜곡된 대중문화로 점차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국적 없는 상흔과 향락문화에 물들어 흥청거리는 거리 젊은이들에게 건전한 기독교문화를 선보이고, 기념일이 나 달콤한 당의정과 같은 선물로 이성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세태에 물질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한 것임을,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임을 전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하는 요즘이다.

대중문화는 우리들 가까이에서 만들어지고 퍼져나가면서 우리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대중문화가 그리스도인에게 귀한 선교의 장이자,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장인 것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대중문화의 자장 안에서 호흡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귀한 젊은이들이 대중문화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에 끌려갈 것인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감에 달렸다고 할 것이다. 나소정(편집부)

98	신일교회	안군기	4-11
99	연보리교회	정장연	에스더 전도회

**동정**

- 이종운 복사는 10일(월) 주기도문·사도신경 재 번역위원회를 소집한다. 13일(목), 14일(금)에는 송실대 주최 목회자 신학 세미나에서 강연한다.
- 박철훈 장로는 2003년도 서울 강남노회 회계로, 오정수 장로는 2003년도 서울 강남노회 남신교회 연합회 회장으로 각각 선임되었다.
- 백홍죽 장로는 2월14일 오후 7시30분 새중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서울 시립합창단 83회 정기연주회에서 지휘한다.
- 손재영 성도(4교구) 장로회 신학대학 신대원 합격
- 조웅식 집사(4교구)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
- 나양호 성도(4교구 나중영 집사, 이은희 권사의 자) 동경대 생체분자 지능공학 박사학위 취득
- 이사: 강영자 권사(4교구) 서초구 반포동 701-68 임옥근 집사 박영자 권사(1교구) 대치4동 926번지
- 득녀: 김용범 김진정 성도(4교구)
- 금주의 식사: 전광영 집사 김인숙 권사 가정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8시 10분 ~ 8시 40분
- 인터넷방송(·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이·미용선교회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김중운 집사(이·미용선교회 회장)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머리카락을 주셨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30일 기준으로 일생 동안 남자의 머리카락은 1.1cm 여자의 것은 1cm 자라는 생명력을 가졌다고 하며 "적막한 곳"으로 간 육신이 모두 썩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끝까지 남는 것 또한 머리카락이라고 합니다. 또한, 머리카락을 의미하는 한자인 "鬚(발)"에서 보듯 머리카락은 우리의 오랜 친구가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 "내 발을 씻기지 못 하십니다"했던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네가 무관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머리손질을 받으러 오는 사람도 우리의 무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이 전도회의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 묵상해봅니

다.

이·미용 선교회는 작년 10월부터 그 동안 이·미용에 참여했던 회원들의 기도의 결실로 11월 15일 창립예배와 총회를 가졌으며 회칙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올해 1월 21일에는 창립 후 처음으로 임원회를 열고 연간 봉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놓여준 이·미용선교, 해외단기선교, 매월 정기봉사(매월 다른 장소를 선정하여 봉사할 예정)와 봉사를 통한 교회각종행사 등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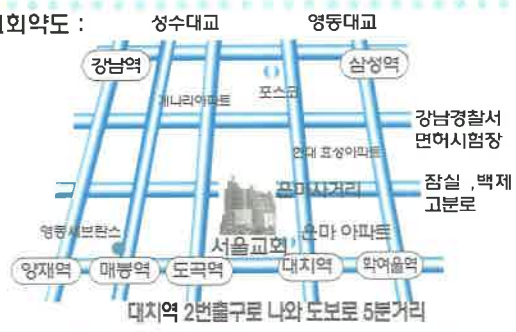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무수하게 보이는 우리들의 머리카락을 다 세시며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공훈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미용선교회가 많은 사명을 충실히 이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교회의 많은 열매는 성령의 인도, 축복하심과 교우들의 관심과 참여에 있사오니 늘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순례자의 지면을 통해서 선교회에 기도와 물질로 봉사하겠다고 자원해주신 30여분의 교우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 사역에 자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개인, 가정, 교회되도록
2.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 은혜 받도록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입시생,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복한의 핵 문제 평화롭게 해결되도록